



강풍 동반 500mm 물폭탄에 피해 속출

신례 514mm·송당 453mm... 제주 동·남부에 쏟아져 남원읍 채석장 절개지 붕괴되며 트럭 3대 와르르 도로·주택 침수와 강풍 피해에 소방출동 이어져

주말 제주에 쏟아진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잇따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누적강수량은 신례 514mm, 태풍센터 456mm, 송당 453.5mm 등 제주 동부·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다. 산간 역시 성판악 553.5mm, 삼각봉

697mm 등의 폭우가 내렸다. 반면 제주 31.6mm, 고산 55.2mm 등 제주 북부와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다. 비는 18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여 18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 북부와 남부, 오후 3시에는 산지와 동부 지역에 내리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18일 오전 7시7분쯤 제주도 구좌읍 한동리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119가 출동, 배수로를 정비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11분 뒤에는 제주시 연동 신축 공사장에서 고무호스관이 강풍에 날리면서 소방당국이 호스관을 잘단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총 7건의 소방출동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채석장 절개지가 폭우에 무너지면서 절개지에 주차된 트럭 3대가 휩쓸려 채석장 아래로 추락했다. 또 채석장 안쪽에 있던 포클레인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한편 20일 제주에는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오후부터는 맑았다. 2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았다. 해상에서는 20일 오전까지 바람이 10~2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송은범기자



도로 확장 공사가 끝난 후 양방향 통행 이면도로로 변경된 도로(오른쪽 방향). 김현석기자

공사 끝나니 더 번잡해진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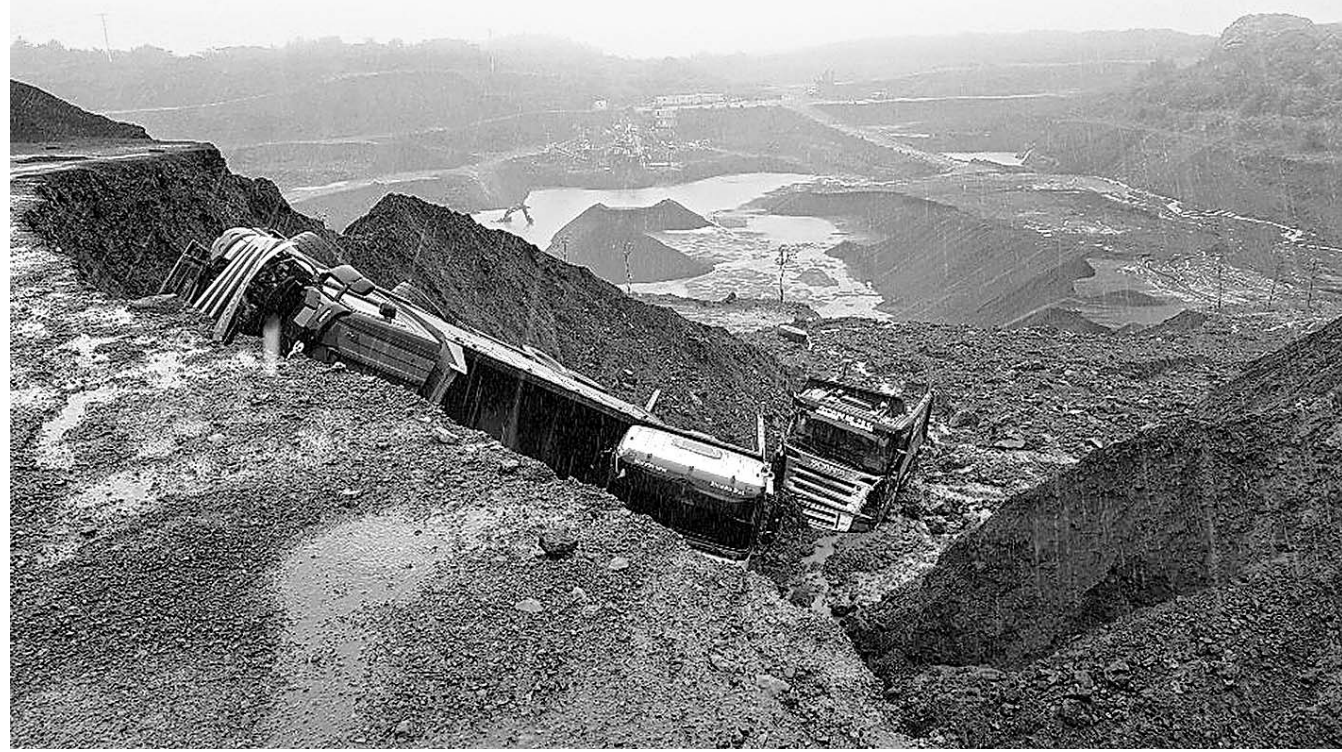
일방통행 확장공사 후 이면도로로 변경 한쪽에 주·정차 늘며 오히려 교통 혼잡

제주시가 협소한 도로를 확장공사 후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 이면도로로 변경하자 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사고를 우려하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2월 사업비 8억원(보상 6억원·공사 2억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2동 관덕로3길과 무근성7길을 잇는 제주 올레길 17코스 도로 확장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기존 일방통행이던 협소한 도로 때문에 주민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역 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 도로 확장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문제는 기존 일방통행이던 도로가 공사가 끝난 후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로 변경됐다는 데 있다. 특히 이 일대 주변 도로가 대부분 일방통행로임에도 이곳만 양방향 도로가 되면서 기형적 구조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변경된 도로에는 별다른 주차 방지 시설도 없어 한쪽 면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교통 혼잡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도로는 제주시 담부서 관리대상 목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 행정 업무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 강모(64)씨는 "말이 이면도로지 한쪽면에 주차된 차로 인해 통행이 더 불편해졌다"며 "마주오는 차량을 볼때면 저절로 한숨이 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48)씨는 "기존 일방통행 도로를 확장 공사 후 이면도로로 변경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확장한 도로를 정작 지역 주민에게 아무 말도 없이 변경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관리대상 목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확인이 어렵다"며 "사업도 끝난 지 3년 가량 지나 당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문 열어주다 사망사고 30대 과실치사 혐의 입건

서귀포시 한 뺑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가 출입문에서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할머니와 함께 문을 열던 30대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관광객 A(33)씨는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내 한 뺑집에서 B(76·여)씨와 출입문을 잡고 여는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B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일주일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할머니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도와주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문미숙기자



18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채석장 절개지가 폭우에 무너지면서 절개지에 주차된 트럭 3대가 휩쓸려 채석장 아래로 추락했다. 또 채석장 안쪽에 있던 포클레인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사진=독자제공

대규모 음란물사이트 30대 운영자 검거

일본서 체포돼 최근 국내 송환... 제주경찰 수사 예정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달아난 30대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최근 일본에서 검거된 고모(34)씨를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건너가 카지노 관련 불법 환전상을 하며 지냈으며, 2017년 9월에는 '오빠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까지 오빠넷을 운영하면서 아동 음

란물 등 1만3000여편의 음란물을 올려 약 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오빠넷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 고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어 IP 추적 등을 통해 고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SLTD)에 고씨의 여권 정보

를 올렸다. SLTD에 여권 정보가 등록되면 인터폴 190개 회원국이 정보를 공유해 소재 및 이동 경로가 확인된다. 고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올해 3월 25일 일본으로 달아났다 검거됐다. 일본 당국이 고씨의 입국 사실을 경찰에 통보한 데 이어, 검거·송환 요구를 받은 일본 경찰이 지난달 22일 오사카에서 고씨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애완견 학대 애견센터 운영업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던 지난해 4월 12일 오후 1시쯤 제주시내 한 야산에서 애완견(슈나우저)을 죽여 땅 속에 묻기 위해 둔 기로 가격,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2008년 11월 7일 제주시에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던 중 2017년 6월 1일 상호명을 변경하고도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전액무료교육 매월최대 116,000 지급
순서 : 방문 상담 → 고용센터

전기내선공사 실무양성과정

1기 취업 86% 달성 100% 취업연계

- 대상: 실업자/구직자/매출1억5천미만사업자
- 교육기간: 6월 개강예정 - 6.5개월 과정
-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 교육내용: 전기 배관배선공사, 약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설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주)제원직업전문학교 제주국제공항
T : 747-5252 jejuwon.com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濟)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물링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를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품질,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임,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부전으로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회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